

# 2019년 K-Law 포럼 개최 성과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제도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으로 한국법 연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한국법 연구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 5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 캠퍼스에서 기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제도화<sup>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up>’를 주제로 2019년도 Korea Law Forum<sup>이하, ‘K-Law 포럼’</sup>을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케이틀린 스테프스<sup>Kathleen Stephens</sup> 전 주미대사, 아메리칸대학교 파디데 알라이<sup>Padideh Ala'i</sup> 국제비교법연구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케이틀린 스테프스는 기초발제에서 제도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제도화를 위하여 포럼을 통하여 대외적인 관점과 대내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1 세션은 ‘남북관계의 평화 프로세스의 제도화의 법적 이슈-국제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sup>Legal Issu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 Peace Process from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Cases and Lessons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sup>’를 주제로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는 뉴욕 바루크 대학의 강명구 교수가 맡았으며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제도화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연구자로 재직하고 있는 캐서린 보토가 맡았으며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안보와 평화의 제도화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의 제도화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제는 세종연구소의 양운철 박사가 담당하였으며, 한반도의 경제적인 변화를 계기로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와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네 번째 발제는 아메리칸대학의 비존 아르프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독일 통일의 사례와 유럽이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독일통일에 미친 국제법적인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콜롬비아대학의 노정호 교수와 법제연구원의 김지훈 박사가 제1세션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제2세션은 입법과 법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관계를 회복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국민대학교의 박정원교수가 법적 제도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으며,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류지성 박사가 한반도 관계의 제도화를 위하여 지난 20년간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법제도적인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데 한국법제연구원의 통일법제연구사업의 성과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향후에도 연구사업의 성과는 미래의 협력을 실천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대학의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멜라니아 레드노박 교수가 연구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남북관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법제 협력(Legal Research and Research Cooperation for Revitalizing and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전략기획실장, 류지성 부연구위원, 뉴욕시립대학교 바록 대학 강명구 교수,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 노정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안정화하는 방법은 제도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이 통합과 협력적인 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K-Law 포럼은 한국법 연구 활성화 및 수요 진작(振作)을 목표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K-Law 포럼은 그 동안 UC버클리로스쿨과 하와이로스쿨 등지에서 열렸으며, 폭넓은 한국법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며 한국의 최신 법제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 K-Law 포럼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으로 한국법 연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한국법 연구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